

이건희 컬렉션·순천만정원박람회 연계 전시 ‘눈길’

지난 2021년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짧은 기간 동안 의미있는 전시를 기획,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전을 통해 자코메티,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풍피두 미술관과 조르주 루오재단에서 엄선한 200여점을 만나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1월 29일까지)’을 개최, 위상을 높였다.

올해는 어떤 전시회로 관람객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전할까. 눈에 띄는 전시는 대규모로 열리는 이번이 컬렉션전이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전시도 관심을 모은다. 전남청년작가상(가칭)을 신설하고 아카이빙 작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과 밀착된 사업도 이어진다.

◇어떤 전시 열리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8월 15일~10월 22일)은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 2021년 김환기·오지호 등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았고 그해 ‘이건희 컬렉션-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을 통해 공개했었다.

이때대, 김종학, 오지호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올해 전시에서는 도립미술관 소장품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과 전국 공공미술관 등에 기증된 이번 컬렉션 중 대표작을 엄선해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메타드급 행사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전시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동시대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예술성의 확장성을 보여줄 국제전 ‘시(詩)의 정원’ (2월21일~6월4일)에서는 안유리, 이매리, 임홍순, 리밍웨이 작가가 참여한다. 그들은 에즈라 파운드, 시인 고정희, 소설가 임철우, 소설가 정지아 등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토대로 작업을 선보인다.

‘또 다른 바다-도대양기(渡大洋記) 전(4월 11일~7월16일)’은 바다길로 이어지는 대만-한국-일본 3국의 현대미술 향해기다. 김승영·강홍구·조방원 작가를 비

전남도립미술관 올해도 대규모 전시 미국 출신 리처드 케네디 특별전 ‘전남청년작가상’ 신설 연말 단체전

롯데 리아홍·우치다 아구리 작가 등이 참여한다.

‘꽃과 낭만’ 전(6월20일~11월5일)은 ‘꽃’을 주제로 한 작품전이다. 도자, 병풍, 테피스트리를 비롯해 한국 근현대 회화와 동시대 영상설치 작품까지 아우르진 기획이다. 이인성, 천경자, 클로드 모네, 제니퍼 스타인 캠프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해마다 해외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다. 개관전에서는 프랑스 작가 로랑 그라스를 초대했고 지난해에는 그룹 ‘ASE+F’의 작업을 선보였다. 올해는 미국 출신 작가 리처드 케네디(Richard Kennedy) 특별전(3월16일~6월4일)을 개최한다.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는 회화, 설치, 영상, 코스트, 퍼포먼스 등 전방위 예술활동을 펼친다. 흑인이자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젠더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의 작품을 통해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자는 질문을 던지는 기획이다.

◇전남 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남도립미술관은 지역 작가 육성을 위해 청년, 중년, 원로 및 작고 작가 등 발전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눈에 띄는 건 ‘전남청년작가상’(가칭) 신설이다. 미술관 학예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작가를 선정, 연말 단체전 형태로 후보작가와 선정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고 작가, 중견작가 전시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레 출신 고화홍 작가 회고전을 개최하며 11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작가·전문가 매칭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고흥 출신 송필용 작가 개인전도 진행한다.

‘예향’, ‘수목의 고장’이라는 유산을 계승하고 세계 수목 연구의 중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목 아카이브 구축도 본격화된다. 남농 허건의 구술채록집을 발간했던 미술관은 올해는 구술 채록은 물론, 사료 수집,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 자료를 갖출 예정이다.

커뮤니티 친화형 예술 플랫폼도 조성한다. 방학 특별 프로그램 개발, 미술대회 개최, 성인 인문학 강좌, 전남교사 통합 예술교육 워크숍 개최 등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하고 콘텐츠를 강화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 리처드 케네디
2 ‘또 다른 바다-도대양기’ 전 참여작가 김승영 작 ‘바다 위의 소풍’
3 전남도립미술관 이번이 컬렉션 천경자 작 ‘화환’



모진 여름 견뎌낸 황금빛 들판 채운 ‘벼’

정순아 초대전, 6~30일 화순 소소미술관

추석 즈음, 고향 진도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노랗게 물든 벼가 보였다. 가을 벌판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은 그의 눈에 “풍요롭고 복되게 마구 출렁거렸”고, 힘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됐다. 그는 문득 “우리 세상이 이렇듯 풍요로워서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작품 속에 담아내자 싶었다.

정순아 작가 초대전이 6일부터 30일까지 화순 소소미술관(도곡면 원화리 304)에서 열린다. 정 작가는 황금들판의 ‘벼’를 소재로 한 판화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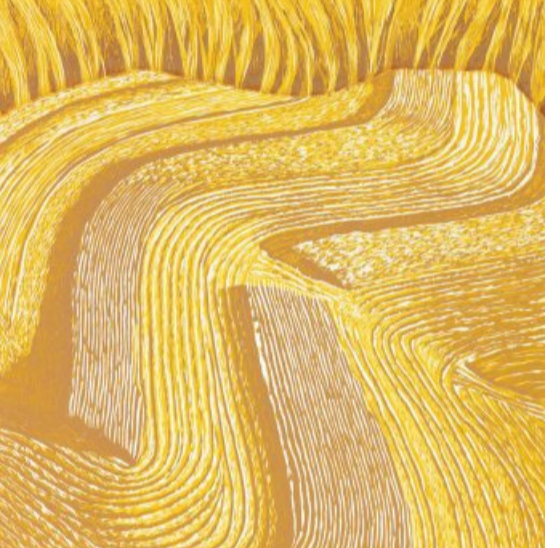
전시제목 ‘득의지추(得意之秋)’는 ‘바라’고 뜻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자성어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체했지만, 모진 여름을 견뎌낸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든 것처럼,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를 담았

다. 작은 씨앗이 벼가 되고, 쌓이 돼 우리 밥상으로 오르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수궁이 간다.

정 작가는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이후 유화와 아크릴 작업을 하기도 했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붓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담아내는 ‘판화’에 마음을 빼앗겼고, 대학원에서 판화를 공부한 후 지금은 판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거친 목판을 다듬어 색을 입히고 하얀 종이 위에 찍어내는 과정은 힘들지만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노란색 벼들의 집합과 벼를 베어낸 공간이 다양한 대비를 이루며 다채로운 판화 작품이 탄생했다. 마치 트랙터가 벼를 수확하듯, 그의 칼이 지나간 길은 리드미컬한 화면을 만들어내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자연스러움이 만들어진 조형성도 눈길을 끈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



‘golden rice 3’
가는 지금까지 1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제아트페어, 단체전, 교류전 등에 90여회 참여했다. 한국목판화협회, 광주판화가협회, www.현대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연둔동(숲정자)’
아름다운 화순 8경, 아름다운 인생
양동언 초대전, 1월 한달간 전남대치과병원

‘수목담체로 만나는 화순 풍경.’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 아트스페이스 갤러리가 1월 한달간 한국화가 양동언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인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양 작가는 ‘화순 8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화순에서 나고 자란 양 작가는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 속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담기길 바랐다.

그가 화폭에 풀어낸 화순 8경은 ‘천불천탑’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운주사를 비롯해 초봄이면 많은 사진작가들을 불러들이는 세량지,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 적벽 등이다. 또 고인돌, 연둔리 숲정자, 백아산, 규봉암, 쌍봉사, 영벽정, 송석정도 8경에 포함된다.

양 작가는 먹의 번짐과 여백의 미, 간결한 채색이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화순의 사시사철 풍광을 펼쳐보인다.

한편 아트스페이스갤러리(디렉터 한광웅)는 매일 작품전시를 기획, 시민들에게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주고,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과 삶에 대한 회한... 고향의 추억들

고흥 출신 김용휴 시인 ‘송엽에 싸인 바람 같이’ 펴내

“바람을 타는 것이 어디 나쁜이겠는가. 그러나 나의 맹점이라면 맹점투성인 나의 사유 속에 하나로 별스럽 게 자리를 띄어 잡고 요자부동인 것이 나중이라는 단 원이다... 그렇다. 나에게 지금이 아니면 없다고, 미루겠다는 사고의 틀을 원인의 단자부터 없애버리겠다고 다그치고 다그쳐본다.”

고흥 출신 김용휴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송엽에 싸인 바람 같이’ (정어)를 펴냈다.

모두 70여 편의 작품이 담긴 시집은 자연과 삶에 대한 회한, 고향의 추억 그리고 금언과 같은 명구들이 담겨 있다. 4부로 구성된 시집은 각각 ‘날마다 날을 세워라’, ‘너는 하늘의 겨울’, ‘다시 봄은 왔는데’, ‘내 고향 가는 길’로 이루어져 있다.

‘날마다 날을 세워라, 어찌 흐르기만 한다더냐! / 차올랐다 지우는 달이 어둠을 벗겨내는 순간, / 황금의 꽃간을 채우는 미화, / 오랜 숙고 끝에 결행은 짧아야 좋다 // 바다가 좋다. 암니 같은 바다, 별빛 흐르는 바다가 좋다. / 바다는 어머니, 새삼 남도의 겨울 바다가 그림다...’

표제시 ‘송엽에 싸인 바람 같이’는 시인의 작품세계

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바다’, ‘어머니’, ‘하늘’, ‘고향’, ‘별빛’ 등 어린 시절 봤던 자연과 원초적인 세계가 자리한다. 그리움과 추억이 묻어나는 시는 ‘내 마음의 꽃, 내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벗, 푸른 숲의 노래를 부르노라’로 수렴될 만큼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아낸다.

아마도 시인의 내면 속에 들어간 이미지의 공간은 모두 고향에서 발원된 아늑하면서도 친근한 세계일 것 같다. 70대 후반에 이른 노 시인이 부르는 노래는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이다.

한편 김용휴 시인은 전남매일 신문기자로 활동했으며 도서출판 ‘규장각’을 설립, 운영했다. ‘한백문학’에 ‘백제인’ 외 3편으로 등단했고 2022년 화순문학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남광주에 나는 가리’를 펴냈으며 전남문협과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재학시절, ‘장미 씨,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를 출간해 지역 문단에 센 세이션을 일으켰던 최지안 시인이 시집 ‘아무튼 불가능한 세계’(시인동네)를 펴냈다.

두 번째 시집인 이번 작품집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앓을 수밖에 없는 통증을 초점을 맞췄다.

이정현 문학평론가의 표현, 즉 ‘지극한 환상통과 결여의 언어로 가득하다. 쓸쓸하면서도 찬란한 마음의 동요’라는 것에서 보듯 시인은 지금 젊음의 특징인 환상통을 시적 언어로 그리고 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지극한 환상통

최지안 시인 ‘아무튼 불가능한 세계’ 펴내

각각의 작품 제목들부터는 눈에 띈다. ‘시라진 미래의 서’를 비롯해 ‘시끄럽게 우아한’, ‘천한 사랑 노래를 받아 적었네’, ‘그 때 나는 겁이 났다’ 등처럼 얼핏 소설 제목 같기도 한 제목들은 이색적이다.

“2550년 그는 시계 없어도 손목을 자주 울렸고, 안경을 두고 나온 날에도 관자놀이를 쓸어 올렸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불안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만이 실감하는 환상통이라 생각했다. 2555년 약속장소에는 AI 시인이 작품집을 갖고 서 있었다. 그(미래적 관점에서 ‘그’라 불러 본다면)가 앉아있던 곳은 모두 명소가 되었다. (후략)”

위 ‘시라진 미래의 서’는 향후 500년 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약속장소에는 AI 시인이 작품집을 갖고 서 있었다’에서 보듯 미래에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화자의 시선은 이미 수백 년 후의 일상을 상상하고 있고 그것은 말 그대로 ‘환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언젠가 그 환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시인이 바라본 환상은 친근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